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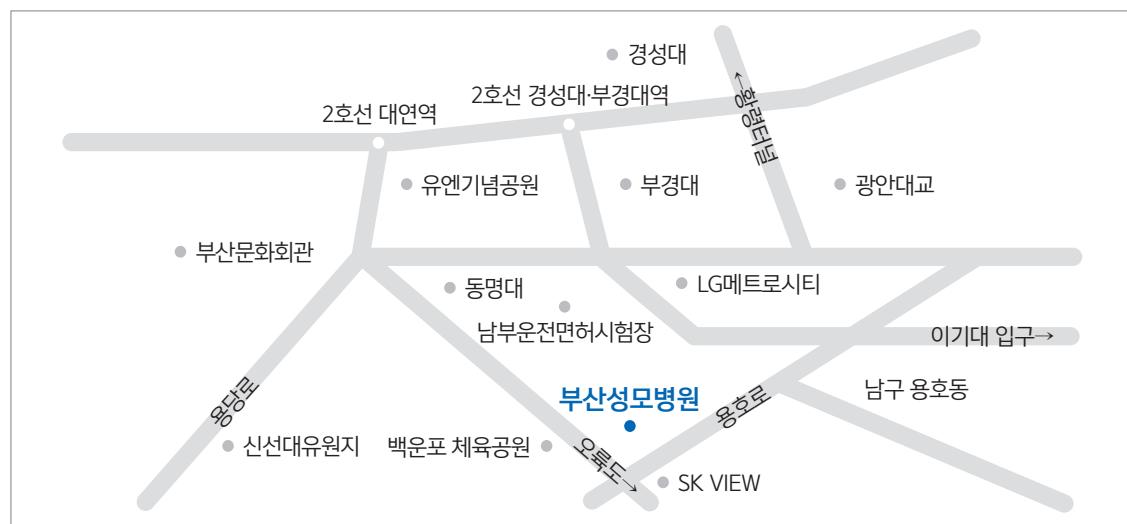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진료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완화의학과	혈액종양내과	완화의학과	혈액종양내과	완화의학과	-
오후	혈액종양내과	완화의학과	혈액종양내과	완화의학과	혈액종양내과	-

※ 가정형 호스피스 진료는 완화의학과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 가정형 호스피스 상담 051)933-7969
- ♥ 완화의료센터 입원 상담 051)933-7133
- ♥ 완화의료센터 입원 진료예약 051)933-7777

## 찾아오는 길



- 서면방면 20, 24번
- 부산역방면 22, 27번
- 동래방면 131번
- 해운대방면 39번
- 마을버스 남구2, 2-1, 8번
- 부산성모병원 정류소 하차(셔틀버스 운행)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T. 051)933-7133 F. 051)932-8636

2025년  
VOL.27

[www.bsm.or.kr](http://www.bsm.or.kr)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 마음이 마음에게

### 이해인

내가 너무 커버려서  
맑지 못한 것  
밝지 못한 것  
바르지 못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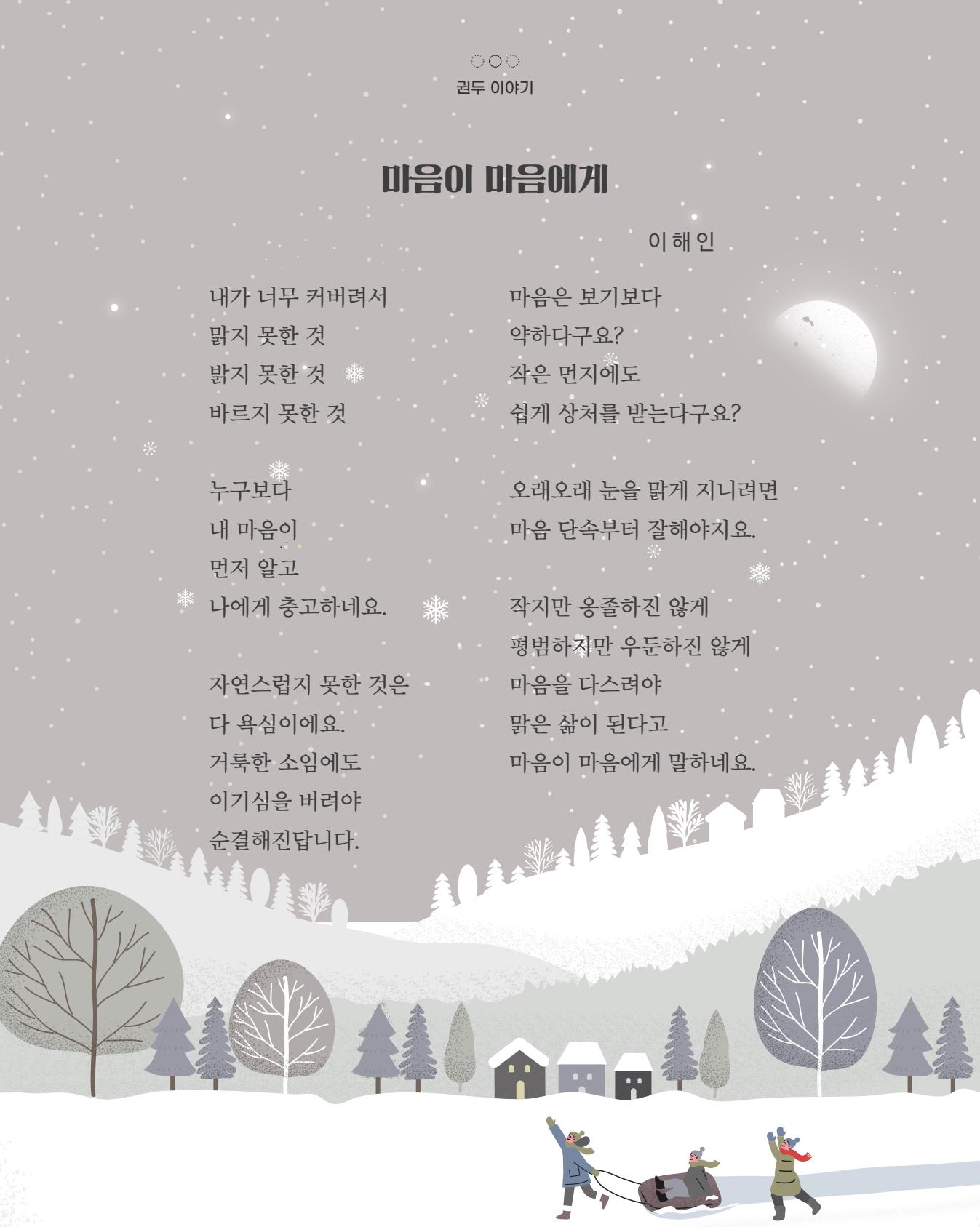
마음은 보기보다  
약하다구요?  
작은 먼지에도  
쉽게 상처를 받는다구요?

누구보다  
내 마음이  
먼저 알고  
나에게 충고하네요.

오래오래 눈을 맑게 지니려면  
마음 단속부터 잘해야지요.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다 욕심이에요.  
거룩한 소임에도  
이기심을 버려야  
순결해진답니다.

작지만 옹졸하진 않게  
평범하지만 우둔하진 않게  
마음을 다스려야  
맑은 삶이 된다고  
마음이 마음에게 말하네요.



###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무엇인가?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 및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돋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 CONTENTS



### 권두 이야기

마음이 마음에게 ..... 이해인 02



### 우리들의 이야기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 배희선  
“의료진은 죽음을 지체시키는 게 ..... 허지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거야.”  
나의 아람 ..... 김은숙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10



### 후원회 가입안내

14



### 이용안내

15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진료시간표

16

동행 2025년 VOL 27호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구수권 편집인 윤명숙

발행처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T 051-933-7133 F 051-932-8636

디자인·인쇄 (주)브레인스톰 | T 051-851-1531 www.stormad.co.kr



##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배희선 아나니아  
사회복지사 수녀



수도생활의 대부분을 사회복지관련 소임을 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로 불러주셨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소임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기에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드렸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말기암 환자와 보호자들!

나는 이분들을 매일 만난다.  
무너지는 육신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마음마저 부서지며 힘겨워 하는 말기암 환자와 함께 하는 가족들,  
많은 아픔과 좌절, 망설임 가운데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선택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죽음이지만, 가보지 않은 길, 알지 못하는 길이기에 두려움과 불안, 무력감으로 괴로워 하는 환자들을 만나는 내게 어김없이 다가오는 분이 계시다.

“나다.”하시며 다가오는 분! 겟세마니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다가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나자렛 예수요.”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다.”하고 말씀하셨다.’(요한18,4-5)

우리의 뜻과 노력 없이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해 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에로 불러주시는 삶에 예수님께서 앞서 계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난다.  
임종을 준비하는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면 어김없이 다가오는 주님이시다.

“나다.”하시며 죽음 앞으로 나서신 주님처럼 “저, 여기 있습니다.”하고 응답하는 삶에로 초대된 호스피스 병동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은 영육의 나약함으로 고통에 짓눌려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너, 수고했다.”

여기에 살아온 삶에 대한 비판, 비난, 비교는 없다.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든 관계없다.

“정말 수고했다. 사랑한다.”만 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약함까지도 사랑하시며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호스피스 병동이다.

우리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만날 때, 나는 주님의 이 마음을 전해 받으며 깊은 사랑으로 끌어 안아 주시는 분을 전해드리고자 한다.

특히, 우리 환자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하고 말씀드리고 주님께 봉헌드리게 된다.

“나다.”하시며 십자가 위의 죽음으로 앞서 나아가신 주님이 계시기에, 고통 중에 있지만 괴롭기만 하지 않고, 우리의 이별이, 죽음이, 슬픔, 고통만이 아니고,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닌, 죽음을 향해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곳 호스피스 병동!

우리 인간의 삶을 알게 하고 배우는 장소이며 ‘지금, 여기의 삶’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는 곳,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자리임을 알게 하는 은총의 자리이다.

오늘도 기도한다.

“나다.”하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시기에 우리 말기암 환자들이 “저, 여기 있습니다.”하고 응답하며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삶에로 나아가기를, 이를 위해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다학제적 협력으로 팀을 이루어 함께 한다.

나 또한 주님께서 불러주실 때,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하고 응답드릴 수 있기를.

삶을 알게 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는 곳!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곳!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치유와 용서의 자리!

지금-오늘을 살게 하는 곳!

우리 병동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사랑의 안식처가 되기를 기도한다.

부산 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의 소임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 “의료진은 죽음을 지체시키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거야.”

허지원 간호사  
완화의료센터



영화 <Patch Adams 패치 아담스>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생명연장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저는 의료진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과연 죽지 않는 것만이 의료진의 최선일까? 약물적 처치뿐 아니라 정서적 케어도 제공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진이 되고 싶다는 사명은 저를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끌었습니다.

만 22살에 시작한 호스피스 간호사로 마주하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하는 오감으로 느껴지는 죽음의 모습은 잊히지 않습니다. 장례문화, 죽음에 대한 이해도는 보호자가 더 높았으며 한 달에 최소 한 번씩 마주하는 임종 소식은 저를 깊은 심연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배 동료선생님들에게 고민상담을 하고, 미국 호스피스 간호사의 에세이를 읽고, 노인생애말기돌봄자교육(ENLCE)과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를 다니면서 삶과 죽음, 호스피스 간호사로서 필요한 태도에 대한 연구와 고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3년 차를 앞둔 지금은 보호자, 환자에게 정서적 케어를 잘하는 간호사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회복되기보단 생의 마지막인 사람들을 케어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허무하고 간호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의 대답은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 이 순

간’이기에, 현재를 덜 힘들게 살아가며 한번이라도 환하게 웃는 것, 그것이 호스피스 간호사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증상은 존재합니다. 지독한 고통 혹은 오심, 구토로 아침에 눈뜨는 것이 힘들 것을 생각하면 진통제, 완화제 한번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되새기게 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는 남녀노소가 모두 오며 다양한 가족들과 임종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만의 죽음 철학을 세웠습니다.

- 1)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 2) 약제를 사용해서라도 고통 없이
- 3) 좋아하는 음악과 향기와 함께
- 4) 창문이 있는 곳에서
- 5) 반려식물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

이 5가지가 가능한 곳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은 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에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는 갑작스러운 죽음 보단 그 과정을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 할지라도 의식이 있고 대화가 된다면 못다한 진심을 전하고 오해를 풀고,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몸이 받아 주는 한에서 마음껏 즐기고 증상 조절을 하면서 이곳에서의 삶도 스스로 선택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암의 진행과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지만 앞으로 여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나의 아람

김은숙 (고 조아람 어머니)

‘아주 잘 익은 밤이나 상수리의 열매(표준국어대사전 이전의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수록되어 있었고,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열매가 아주 잘 익은 상태’로 표기되어 좀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확장되었음)’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인 ‘아람’은 나의 딸의 이름이다.

아람이를 출산 후 친정엄마는 나의 손목을 걱정하시면서 만류하셨지만, 국어사전을 살살이 뒤져 찾아낸 이름이다. 누군들 자신의 자식이 예쁘지 않으랴마는 나에게도 한없이 예쁜 자식으로 찾아온 아람이는 커가면서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말이 늦었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놀기를 좋아했다.

나중에 지적 장애로 판정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20대부터는 정신적인 문제가 더해져 정신과 약을 계속 복용하였다.

이것으로 그쳤으면 좋으련만, 2022년 35세의 나이에는 난소와 간으로 전이된 대장암 4기였다. 코로나의 공포가 엄습한 시기여서 병원 출입에 긴장감이 팽팽했는데 아람이는 병원 진료와 입원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 입원 초기에 장폐색으로 인해 아람이는 무척 힘들어했는데, 대장에 스텐트를 삽입하여 일주일 동안 장을 비우고 대장과 난소에 있는 종양 제거 수술과 항암 6회, 6개월 후 간에 있는 종양 제거 수술과 6회 항암으로 2022년 초~2023년 초까지 병원과 집을 오갔다.

대장암 4기는 보험적용이 되는 표적항암제인 얼비툭스를 사용했는데 그 효과인지 2023년 초 CT에서는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관해 상태였다.

그 후 2023년~2025년 4월 초까지는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잘 지냈는데 결국 간에 암이 재발하고 말았다. 더 이상 수술과 항암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기에 이제부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수술했던 기존 병원에서는 수술과 항암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면서 소견서를 써 줄테니 요양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했다.

아람이는 드라이브를 무척 좋아했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인들이 출근하듯이 거의 일정한 시간에 맞춰 일년 내내 매일 오전 드라이브를 3시간 정도 했으며 집에 와서 점심 식사 후 놀다가 늦은 오후에 또 드라이브를



나가는 게 일상이었다.

이런 사람이가 요양병원에서 일상을 보낸다는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도 더해질텐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난 '가정형 호스피스'는 사람이에게 단비와 같았다.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주일에 한 번씩 간호사 선생님과 수녀님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필요한 약과 심리적인 상담으로 위로해 주셨다.

박양은 간호사 선생님은 사람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며 사람이에게 필요한 의료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셨고, 아나니아 수녀님은 사람이의 심리적인 상태를 살펴주시면서 사람이와 친밀도를 높이셨다.

노의진 의사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정방문 하셔서 피검사 결과에 대한 내용과 현재 상태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씀해주셔서 마음이 든든했다.

사람이는 사람에 대해 호불호가 뚜렷한데 처음부터 박양은 간호사 선생님과 아나니아 수녀님을 좋아했다.

언제 오시는지 묻고 기다리기를 좋아했다.

진통제 타진과 아이알코돈정으로 사람이의 통증은 조절이 잘 되어서 2025년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가정형 호스피스의 혜택을 맘껏 누렸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사람이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만족도가 100%였다.

그러던 중 추석연휴 전, 가정방문에서 노의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추석연휴 지난 후에는 입원해서 진료를 해 보자고 하셨는데 전문가의 판단이 정확했다.

추석연휴 동안 상태가 불안 불안 했는데, 결국 소변을 전혀 못 보고 구토 증세도 늘어났으며 배는 점점 더 불러오면서 사람이는 노의진 의사선생님께 가자고 했고 10월 15일 성모병원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했다.

검사 후 걱정했던 복수는 아니었고 신장기능의 저하로 인해 소변이 차 있었던 것이었다.

진통제는 먹는 약 대신 수액을 달아서 조절했는데 수액으로 몰핀이 들어가자 사람이는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성모병원 호스피스병동에 오니 몇 년간 가슴 밑바닥에 무겁게 깔려 있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참 편안했다.

가정방문으로 친밀감이 높아진 노의진 과장님, 박양은 간호사 선생님, 아나니아 수녀님이 계셔서 든든했으며 도우미 선생님들이 사람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전문가답게 능숙하고 세심한 손길로 보살펴 주셨다.

자원봉사자들께서는 다양한 봉사와 기도로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사람이는 아로마 발마 사지를 편안하게 받았고 무척 행복해했다.

그리고 성모병원 호스피스병동에 와서 만난 에너자이저(마리엠마) 수녀님(병동 화분을 관리하시면서 일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고 늘 에너지가 넘쳐 보여서 내가 불인 이름임)과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면서 항상 밝은 미소로 대해주시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매일 환자와 보호자를 챙겨주셨다. 덕분에 나는 집에서보다 잠을 더 많이 잤으며 사람이의 하루를 곁에서 같이 보낼 수 있었다.

입원 2주쯤 되던 10월 28일 새벽에 도우미 선생님이 자고 있던 나를 깨우셨다.

시간을 보니 04시 경이었다. 사람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라운딩 시간이 아닌데도 간호사 선생님을 불러 혈압과 호흡 등을 체크하고 나를 깨우신 것이었다. 그날 담당 도우미 선생님이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사람이를 방을 옮겨서 살펴보니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있었지만 말은 하지 못해 대화는 할 수 없었다. 나는 사람이와 밀착해서 귀에 대고 사람이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나는 일상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이었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새로운 일들이 생각나서 계속 말해 주었다.

사람이가 일곱 살 때 하늘나라로 떠난 사람이 아빠가 사람이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도 말해 주었다. 4시간 이상을 이야기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이야기 마지막 즈음에 사람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사람이가 눈물을 왜 흘리지?'하면서 별생각 없이 눈물을 닦아주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가 왜 눈물을 흘렸는지 궁금했다.

잠깐 사람이의 호흡이 불안정해지더니 사람이 남동생이 시간을 알려준 아침 08시 45분에 사람이는 38세의 나이로 나의 품속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나는 엎드려 사람이를 안고 "아람아~ 고생했다. 이 세상을 살아내느라고 고생했다. 고생했다. 그리고 엄마가 미안하다.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람아~ 사랑한다.

이제나 저제나 엄마는 널 늘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흐느껴 울었다.

곁에 있던 아들이 나를 안으며 엄마도 고생했다면서 같이 울었다.

장례식 과정에서도 자원봉사자님들이 오셔서 기도를 해 주시고 위로해주셔서 정말 위안이 되었고 감사했다. 사람이는 10월 30일 화창한 햇살이 비추던 시월의 마지막 즈음에 그렇게 떠나갔다.

내가 사람이를 낳고 살아 온 동안 단 하루도 사람이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생활의 중심에 늘 사람이가 있었고 사람은 나의 십자가이자 버팀목이었다.

그래서 사람이가 떠난 후 한동안 상실감으로 슬픔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보니 사람이가 성모병원 호스피스를 만나서 사람이의 마지막 순간들을 고통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차츰 슬픔이 가라앉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제 나의 사람은 내 가슴 속에서 아주 잘 익은 열매가 되어 나와 늘 함께 존재할 것이다.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 사별가족 모임



1차



2차



3차



어버이날



힘내라! 삼계탕(복날)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생신/축일 축하



### 가족교육



### 소원을 말해봐 (시인을 꿈꾸던 환자의 마음 시 낭송회)



### 완화의료센터 자원봉사자



요법 프로그램 현장



공연 및 음악회



가정형 호스피스

복날 이벤트

어버이날 주간에 카네이션 꽃과 부드러운 빵으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였다.



사별 가족 방문

임종하신 환자의 가정을 찾아가  
가족들의 사별의 아픔을 위로하였다.



농업인의 날(빼빼로데이) 이벤트

추석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송편과 식혜를 드렸다.



생일 이벤트

생신을 맞이한 가정형 호스피스 환자에게  
생신을 축하드렸다.



소진 관리

가정형 호스피스의 담당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가 함께 모여 말기암 환자와 가족 돌봄에 대한  
대화와 함께 소진해소와 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심리요법과 발마사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가 가정으로 찾아가 심리요법과  
발마사지를 시행하여 심리 정서적 상담과  
신체의 긴장을 완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 시청과 남구청을 방문하여  
가정형 호스피스 홍보

부산 시청과 남구청을 방문하여  
가정형 호스피스를 홍보하였다.



# 후원회 가입안내



호스피스 후원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사무실의 Fax, 전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후원회원에게는 호스피스 소식지를 발송해 드리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 후원기금 참여 신청서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 부산가톨릭의료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후원하시는 모든 기부자분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기부약정의 효력으로 영구 보관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동의 서명 : \_\_\_\_\_

금액 : 일금 원(₩) )

일시기부 :

정기기부 : 매월 원 회(년)

※ 납부안내 :  무통장 입금

- 예금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자동이체(CMS)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 후원기금은 소정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 펼치는 말기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 실천 사업을 지지하며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신청서 보내주실 곳 4857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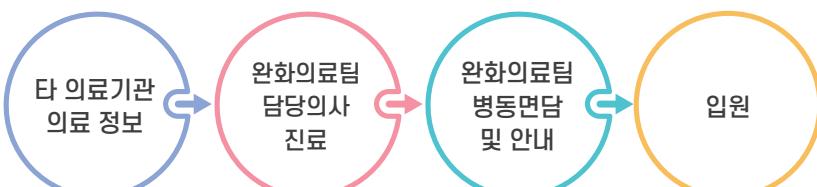
후원회 관련 문의사항 Tel 051)933-7137 Fax 051)932-8636

##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이용안내

### 본원 입원 환자



### 다기관 환자



※ 구비서류 ①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1개월 이내)

- ② 최근 검사자료(CD 및 영상 판독지, 조직검사 결과지)
- ③ 현재 복용 중인 약 처방전
- ④ 의무기록사본 등

### 진료시간 및 진료과 안내



- 예약 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진료예약 : 051)933-7777
- 평일 : 오전 10시~오후 5시
- 토요일 : 오전 10시~오후 12시(일요일, 공휴일은 휴진)

### 진료상담 및 문의



- 입원형 : 051)933-7133
- 가정형 : 051)933-7969
- F A X : 051)932-8636